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 C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Library Anxiet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CAU Library Users

남 영 준(Young-Joon Nam)*
김 규 환(Gyu-Hwan Kim)**
최 성 은(Sung-Eun Choi)***

< 목 차 >

I. 서 론	2. 분석내용과 방법
II. 이론적 배경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도서관불안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2.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 LAS)	2. 응답자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
3. 도서관불안 측정	3. 기초통계 분석
III. 연구 설계	4. 도서관불안 분석
1. 측정도구	V.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도서관불안 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C대학도서관의 유학생 이용자 131명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척도(LAS)를 사용하여 성별, 학년,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이용빈도, 한국어능력, 문화적 이질감과 관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ostick의 LAS를 이용하여 측정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 점수는 평균 2.60점이었으며 '기계적인 장벽'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도서관의 편안함'과 '도서관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서관이용교육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을 적게 느꼈으며 도서관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서관불안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능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감이 낮을수록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이용교육과 이용빈도 활성화 측면에서 도서관불안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도서관불안, LAS, 외국인 유학생, 도서관불안척도, 대학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ause of the library anxiety among foreign students upon visiting college libraries. 131 students were investigated using Library Anxiety Scale (L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grade, library use education, frequency of library use, Korean skill and cultural heterogeneity. The result of the LAS showed an average of 2.60 among foreign students, and the anxiety from the "mechanical barrier" was scored the highest. For sex, male students tended to be relatively more anxious than female students on the "accommodation of library" and "knowledge of librar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ibrary use education were less anxious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e more one used library, the less one became anxiou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e way ahead for resolving library anxiety through library use education and frequency of use.

Keywords: Library Anxiety, LAS, Foreign Students, Library Anxiety Scale, Academic Library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yj@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gyuhwan@kisti.re.kr)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BK21 참여연구원(share333@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도서관불안이라는 개념은 1986년에 Mellon¹⁾이 처음 심리학적 개념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력감과 혼란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도서관불안이라고 한다. 도서관불안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서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불안 측정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외 경우 Bostick²⁾은 Mellon의 이론에 착안하여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편안함, 도서관 지식, 기계에 의한 장벽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 LAS)를 개발하여 도서관불안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Jiao와 Onwuegbuzie³⁾는 Bostick의 LAS를 사용하여 5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13가지 개인적 요소와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후 도서관불안 5개 영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Jiao와 Onwuegbuzie⁴⁾는 미국에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느끼는 도서관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고 Bostick의 LAS를 사용하여 125명의 비영어 사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장혜란과 오의경⁵⁾이 현재 도서관불안 수준을 파악하고자 Bostick의 LAS를 사용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과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내국인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경우였으며, 대학구성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정부와 대학들이 대학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⁶⁾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대학생 수가 2003년 12,314명에서 2008년 63,952명으로 5년 동안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⁷⁾

-
- 1) C. A. Mellon, "Library anxiety : A Groun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47(1986), pp.160-165.
 - 2) S. L. Bostic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of Wayne State University, 1992).
 - 3)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Library Quarterly*, Vol.67, No.4(1997), pp.372-389.
 - 4)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 *Urban Library Journal*, Vol.11(2001), pp.16-27.
 - 5) 장혜란, 오의경,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2006. 09), pp.205-211.
 - 6) 안영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동과정과 주요배경," *대한지리학회 2009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2009. 5), pp.27-29.
 - 7)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me_kor/inform/1/2/1207507_10862.html> [인용 2010. 11. 22].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적 장벽 및 문화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내국인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 수 있다. Jiao와 Onwuegbuzie의 연구⁸⁾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들은 내국인 학생들 보다 직원에 대한 장벽, 기계에 대한 장벽, 정서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다양한 학생들의 도서관 방문과 참여를 유도하고 학문과 연구 활동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여 대학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불안 요소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 학년, 도서관이용목적, 도서관이용빈도, 도서관이용교육, 그리고 한국어능력, 문화적 이질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불안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은 효과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질적 연구의 결과로 도서관이용자 연구에 처음 등장하였다.⁹⁾ Mellon은 20명의 대학 강사의 협조를 얻어 그들이 가르치는 작문 과목에서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 내용은 (1) 리포트를 쓰는데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의 경험, (2) 도서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3) 그 감정들이 시간에 따라 변했는지, (4)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이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75-85%의 참가자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무서움, 길 잃음, 무기력, 혼동, 알 수 없는 두려움” 등이 많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표현한 주요 감정으로 나타났다.¹⁰⁾¹¹⁾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남에게 표현해야 하지만,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다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반면 자신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며 굳이 그러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러한 자신감 부족이 결국 해결과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8)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 *op. cit.*

9) S. L. Bostick, *op. cit.*

10) C. A. Mellon, *op. cit.*

11) S. L. Bostick, *op. cit.*

된다고 하였다. Mellon은 도서관불안이론을 도서관 이용자가 느끼는 정서적 장벽을 보다 큰 불안이론의 틀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경험을 보다 보편적인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²⁾

현재까지 도서관불안 연구들은 도서관 이용시 느끼는 이런 도서관불안으로 인해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 학습수행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해소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 LAS)

Mellon의 도서관불안 이론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Bostick은 Mellon의 이론에 착안하여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 LAS)를 개발하여 도서관불안을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발과정을 보면, 먼저 총 6개 영역(직원, 도서관자료, 기술, 참고봉사, 도서관규정 및 절차,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걸쳐 도서관불안을 나타내는 268개 문항을 선정하여 리스트를 만들어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194개 문항의 예비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문항으로 총 291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88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이를 다시 415명의 학생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43개의 문항을 도서관불안 측정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측정문항은 도서관불안을 구성하는 주요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¹³⁾

제 1 영역은 직원으로 인한 장벽(Barriers with staff)으로 15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은 “사서는 나를 도울 시간이 없다”, “도서관 직원들은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서들에게 접근하기 힘들다”, “도서관 직원들은 학생들을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도서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등 주로 도서관직원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서워 접근하기 힘들거나, 전화를 받는 등 다른 업무로 바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은 LAS가 설명하는 총 51.8%의 변량 중 25.4%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측정영역으로 나타났다.

제 2 영역은 정서적 장벽(Affective barriers)으로 총 12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은 “도서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도서관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혼돈스럽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다” 등 주로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만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의 자신감 결여나 좌절감을 드러내는 측정문항들을 포함하며 8.0%의

12) 권나현, “디지털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06), pp.29-47.

13) 상계논문, pp.32-33.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LAS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하위영역으로 나타났다.

제 3 영역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Comfort with the library)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8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은 “대출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도와준다”, “나는 도서관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나는 도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도서관에서 내가 찾는 것이 항상 없다” 등의 주로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하기에 편안한 곳인가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며 총 7.4%의 도서관불안을 설명하였다.

제 4 영역은 도서관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he Library)을 측정한 것으로 총 5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서관은 내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도서관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도서관은 안전한 곳이다” 등의 주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 측정문항을 포함하며 총 6.1%의 도서관불안을 설명하였다.

제 5 영역은 기계로 인한 장벽(Mechanical barriers)을 측정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린터는 자주 종이가 없다”, “동전교환기는 대부분 고장 나 있다”, “복사기는 대개 고장이 나 있다” 등 3개의 측정문항으로 되었다. 이 영역은 주로 도서관에 설치된 기기의 사용법 숙지, 그리고 기기의 사용에 나타난 불안감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포함하며, 총 4.9%의 변량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5개 영역으로 구성된 Bostick의 도서관불안척도(LAS)는 5점 리커드 타입 척도로 설계된 총 43문항으로 도서관불안의 총 51.8%를 설명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알파계수)가 0.80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고 2~3주 후 동일한 문항으로 시행된 2차 테스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지수가 Pearson상관계수 0.74로 나타나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¹⁴⁾

3. 도서관불안 측정

1986년에 Mellon이 도서관불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1992년에 Bostick이 도서관불안이라는 개념을 계량화하기 위해 도서관불안척도(LAS) 개발 이후 18년간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는 크게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LAS의 개선 및 새로운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도서관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구분할 수가 있다. 또한 수정된 LAS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¹⁵⁾

먼저 LAS의 개선 및 새로운 척도 개발연구와 관련한 연구로는 권나현, Van Kampen, 박현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권나현¹⁶⁾은 LAS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써

14) S. L. Bostick, *op. cit.*

15) M. A. Anwar, N. M. Al-Kandari, and C. L. Al-Qallaf, “Use of Bostick's Library Anxiety Scale on Undergraduate Biological Sciences Students of Kuwait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6, No.2(2004), pp.266-283.

활용되었으나 LAS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서관불안 척도로서, 현재 도서관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며 몇몇의 항목들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최근에 디지털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Van Kampen¹⁷⁾는 현대적 도서관환경을 반영하여 LAS의 수정을 제안하였고 다차원도서관불안척도(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MLAS))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편안함과 친근함', '정보탐색과정에서의 불안', '도서관직원장벽', '도서관이용 능력인식 등의 정서적 장벽', '도서관 관련기술의 적응능력', '도서관에서의 안락함' 등 모두 6개의 하위 영역에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LAS 항목을 기초로 하였고, Kuhlthau의 Information Search Process Model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권나현의 연구에서는 실제 디지털환경에서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도구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근 정수진 외¹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서관불안이 높을수록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빈도가 낮아진 반면 도서관 웹사이트 방문과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MLAS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정보 불안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학부생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현영과 남태우¹⁹⁾는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를 개발하였는데,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는 '물리적, 환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 '과제 및 연구', '디지털정보', '도서관직원', '심리적, 정서적 요소' 등 6개 하위영역과 4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40개 문항 중 일부 항목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었고, 6개 영역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도서관불안 측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도서관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Jiao와 Onwuegbuzie²⁰⁾는 LAS를 처음으로 493명의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들은 도서관불안은 연령, 모국어, 학년, 도서관교육의 참가수, 고용상태, 도서관방문빈도, 온라인 색인의 사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Jiao와 Onwuegbuzie²¹⁾는 도서관불안은 미국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52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ostick이 제시한 5개 영역의 도서관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들 도서관불안 영역들을 컴퓨터색인이나 온라인 기기의 이용, 성별, 학년, 모국어, 도서관방문빈도, 참

16) 권나현, 전제논문.

17) Van Kampen and Doris 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5, No.1(2004), pp.28-34.

18) 정수진 등,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의 통계적 분석," 제 16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관리학회(2009), pp.173-179.

19) 박현영, 남태우,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6, 09), pp.99-120.

20) Q. G.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Library Anxiety :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8, No.2(1996), pp.151-163.

21)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op. cit.*

여한 도서관교육 강좌의 수, 도서관방문목적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Jiao와 Onwuegbuzie²²⁾는 1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인식(self-perception)과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인지된 학술능력, 인지된 지적능력, 인지된 창의력, 인지된 사회적 승인과 관련되는 낮은 수준의 자기인식을 가진 학생들은 정서적 장벽과 도서관에서의 안락함의 영역에서 높은 도서관불안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Jiao와 Onwuegbuzie(2001)²³⁾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 정도를 LA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국제학생들이 높은 도서관불안감을 보였으며, 국제학생은 5개 도서관 불안영역 가운데 기계적인 장벽이 가장 높은 불안감으로 보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영역이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장혜란과 오의경, 김홍렬 등의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장혜란과 오의경²⁴⁾은 LAS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도서관불안은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도서관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은 학년이 높고, 도서관방문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렬²⁵⁾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 요소를 L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은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별, 연령별, 학력별, 도서관방문횟수별, 도서관교육프로그램참여여부에 따라 도서관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을 '도서관에 직접 방문했을 때 이용자가 겪는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며 도서관불안 측정이 시작된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LA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Bostick)의 LA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15문항), 정서적 장벽(12문항), 도서관의 안락함(8문항), 도서관에 대한 지식(5문항), 기계적 장벽(3문항)을 측정하는 도서관불안

22) Q. G. Jiao, A. J. Onwuegbuzie,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Vol.48, No.3(1999), pp.140-147.

23)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 *op. cit.*

24) 장혜란, 오의경, 전계논문.

25) 김홍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8. 12), pp.461-478.

척도(LAS) 영역과 성별(1문항)과 학년(1문항), 도서관이용목적(1문항), 도서관이용빈도(1문항), 도서관이용교육유무(1문항), 한국어능력(3문항)과 문화적 이질감(3문항)을 측정하는 이용자 특성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LAS 영역에서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은 사서들과의 의사소통 및 접근, 도움에서의 어려움, 사서들의 시간부족에서 오는 불편함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장벽'은 이용자 자신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신감 부족 및 좌절감을 측정하였다. '도서관의 편안함'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하기에 편안한 곳인가를 측정하였고, '도서관에 관한 지식'은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장벽'은 도서관에 설치된 기기의 사용법 숙지, 그리고 기기의 사용에서 나타난 불안감을 측정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측정영역		측정치표	설문문항 번호
이용자 특성 영역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2) 학년	1문항
	2. 도서관 이용 행태	1) 도서관 방문 목적 2) 도서관 방문 빈도 3) 도서관 이용교육 참여유무	1-3문항
	3. 외국인 특성	1) 한국어능력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 2) 문화적 이질감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몰이해, 거부감, 부적응)	1-6문항
도서관불안척도 (Bostick의 LAS)	1. 직원으로 인한 장벽		직원1-15문항
	2. 정서적 장벽		정서1-12문항
	3.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편안함1-8문항
	4. 도서관에 대한 지식		도서관지식1-5문항
	5. 기계적인 장벽		기계1-3문항

LAS 영역의 설문문항은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코딩과정에서 높은 점수가 불안감이 큰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한국어능력(듣기, 쓰기, 말하기)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코딩과정에서 높은 점수가 해당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문화적 이질성(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몰이해, 거부감, 부적응 정도)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코딩과정에서 높은 점수가 문화적 이질성이 큰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2. 분석내용과 방법

조사는 C대학도서관 유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C대학교 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C대학교 유학생은 2007년 1학기 465명에서 2010학년도 1학기 1,141명으로 3년 동안 약 2.4배 증가하였다. 국가별 유학생 현황을 보면, 중국 유학생 965명, 대만 유학생 14명, 몽골 유학생 13명, 일본 유학생 11명, 베트남 유학생 9명,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7명, 기타국가 유학생 122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총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C대학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965명)이 속한 학과사무실을 통해 도서관 이용경험이 1회 이상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2010년 10월 11일에서 2010년 11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배포된 총 180개 중에서 16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8%를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131개의 설문지를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12.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랐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도서관이용교육 이수유무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년, 도서관방문목적, 도서관방문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불안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어실력과 한국대학문화인식정도와 도서관불안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S는 국내외 관련 도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서관불안 측정도구로서 내용 타당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전제로 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LAS의 신뢰성이 성립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Cronbach's 알파계수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원에 의한 장벽'은 0.863, '정서적 장벽'은 0.779,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은 0.623, '도서관에 관한 지식'은 0.647, '기계적 장벽'은 0.630으로 모든 영역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단, '정서적 장벽'의 경우 3번 측정문항을 제거 시 Cronbach's 알파계수가 0.81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3번 문항을 제거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정서적 장벽'을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알파계수 값은 0.9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응답자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

응답자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같다. 먼저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71%(93명)로 남자 29%(38명)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 별 분포도는 3학년이 42%(55명), 2학년이 25%(33명), 4학년이 17%(23명), 1학년이 16%(20명) 순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3-4학년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도서관 이용행태를 보면, 도서관 이용목적은 도서대출/반납이 32%(7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열람실이용이 25%(60명), 독서가 19%(47명), 정보검색이 14%(34명), 휴식이 10%(2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빈도는 주로 한 달에 1-3회 정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36%(4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학기 1-5회가 31%(41명), 주 1-3회가 29%(38명), 매일 방문하는 경우가 4%(5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교육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61%(80명)이 참여했으며 39%(51명)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

구 분	항목	빈도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38	29%
		여자	93	71%
	학년	1학년	20	16%
		2학년	33	25%
		3학년	55	42%
4학년	23	17%		
도서관 이용 행태	이용목적 (복수응답)	도서대출/반납	77	32%
		정보검색	34	14%
		독서	47	19%
		휴식	26	10%
		열람실이용	60	25%
	이용빈도	매일	5	4%
		주 1-3회	38	29%
		한 달 1-3회	47	36%
		한 학기 1-5회	41	31%
	이용교육	참여	80	61%
미참여		51	39%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한국어능력과 문화적 이질감 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 결과, 한국어능력은 듣기능력이 평균 3.7점, 말하기능력이 평균 3.4점, 쓰기능력이 평균 3.2점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쓰기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몰이해도는 평균 2.9점, 부적응도는 평균 2.6점, 거부감은 평균 2.4점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문화에 대해 문화적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의 한국어능력 및 문화적 이질감

구 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특성	한국어능력	듣기	3.7	0.9
		쓰기	3.2	0.9
		말하기	3.4	0.9
		전체	3.4	0.9
	문화적 이질성	몰이해도	2.9	0.8
		거부감	2.4	0.9
		부적응도	2.6	0.9
		전체	2.6	0.9

성별에 따른 한국어능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능력 중 듣기능력은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_{값} = -3.814 / p=0.00$). 여자는 듣기능력이 평균 3.8점(표준편차 0.8)으로 남자의 듣기능력인 평균 3.2(표준편차 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쓰기 및 말하기능력은 남녀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년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능력 중 쓰기 및 말하기능력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쓰기 : $f_{값}=5.443 / p=0.001$, 말하기 : $f_{값}=3.412 / p=0.020$). 대체적으로 학년이 높아 질수록 쓰기 및 말하기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듣기능력은 모든 학년에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고른 점수분포를 보였다.

한편 문화적 이질감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초통계 분석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의 전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서관불안척도

26) * 쓰기능력 : 1학년(평균 2.7), 2학년(평균 3.0), 3학년(평균 3.2), 4학년(평균 3.7)

* 말하기능력 : 1학년(평균 2.9), 2학년(평균 3.3), 3학년(평균 3.5), 4학년(평균 3.7).

(LAS)의 5개 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된 도서관불안의 전체 평균점수는 2.60점이고 표준편차는 0.5점으로 나타났다. Bostick의 연구²⁷⁾에서 산출된 평균 2.73점보다는 낮고 장혜란과 오의경의 연구²⁸⁾에서 산출된 평균 2.55점과는 비슷한 수치이다.

5개 영역별 도서관불안점수를 비교해 보면, '기계적 장벽'으로 인한 도서관불안점수가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정서적 장벽'이 평균 2.65점,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이 평균 2.59점, '직원에 의한 장벽'이 평균 2.57점, '도서관에 관한 지식'이 평균 2.51점 순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iao와 Onwuegbuzie²⁹⁾의 비영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LAS를 활용하여 도서관불안을 측정한 연구 결과와 같다. 즉 해당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역시 도서관불안영역 중 기계적인 장벽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영역에서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였다.

<표 4> 도서관불안에 대한 기초통계

영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원으로 인한 장벽	1	4	2.57	0.4
정서적 장벽	1	4	2.65	0.5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2	4	2.59	0.4
도서관에 관한 지식	1	4	2.51	0.6
기계적 장벽	2	5	2.70	0.6
전체	1.4	4.2	2.60	0.5

<표 4>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유형, 도서관내에서 자료 탐색과 이용방법 등 주로 자신과 다른 이용자와 비교하여 자신만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측면의 자신감 결여나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앞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61%(80명)이 도서관이용자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도서관 안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너무 혼돈스럽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다”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현재까지의 도서관이용자교육프로그램이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7) S. L. Bostick, *op. cit.*

28) 장혜란, 오의경, 전개논문.

29)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 *op. cit.*

4. 도서관불안 분석

가.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도서관불안 5개 영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Bostick³⁰⁾의 연구와 장혜란과 오의경³¹⁾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으로 여자의 불안감이 남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와 반대되며 반면 대체로 남자의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난 Jiao와 Onwuegbuzie의 연구³²⁾³³⁾ 결과와는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표 5>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영역	성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직원에 의한 장벽	남자	38	2.69	0.44	1.943	0.054
	여자	93	2.52	0.43		
정서적 장벽	남자	38	2.77	0.47	1.761	0.081
	여자	93	2.60	0.49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남자	38	2.78	0.33	3.237	0.002**
	여자	93	2.51	0.45		
도서관에 관한 지식	남자	38	2.80	0.50	3.942	0.000**
	여자	93	2.39	0.56		
기계적 장벽	남자	38	2.75	0.56	0.648	0.518
	여자	93	2.68	0.60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5개 영역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도서관에 관한 지식'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학년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표 6>과 같다. 먼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서관이나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30) S. L. Bostick, *op. cit.*

31) 장혜란, 오의경, 전계논문.

32) Q. C.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op. cit.*

33)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op. cit.*

증가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5개 영역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장혜란과 오의경³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학년에 따른 5개 영역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른 도서관불안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학년에 따른 도서관불안

영역	학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원에 의한 장벽	1학년	20	2.56	0.60	0.700	0.554
	2학년	33	2.50	0.50		
	3학년	55	2.63	0.37		
	4학년	23	2.53	0.41		
정서적 장벽	1학년	20	2.60	0.60	0.686	0.562
	2학년	33	2.66	0.52		
	3학년	55	2.71	0.44		
	4학년	23	2.55	0.44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1학년	20	2.61	0.56	1.015	0.389
	2학년	33	2.66	0.40		
	3학년	55	2.59	0.69		
	4학년	23	2.46	0.47		
도서관에 관한 지식	1학년	20	2.49	0.77	0.046	0.987
	2학년	33	2.48	0.49		
	3학년	55	2.52	0.57		
	4학년	23	2.52	0.52		
기계적 장벽	1학년	20	2.82	0.71	0.356	0.785
	2학년	33	2.69	0.45		
	3학년	55	2.70	0.61		
	4학년	23	2.64	0.60		

** p < .01, * p < .05.

다.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응답자의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를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4개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본수가 적은 매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용빈도가 커질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장혜란, 오의경, 전계논문.

〈표 7〉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영역	이용빈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원에 의한 장벽	매일	5	2.47	0.57	4.331	0.006**
	주 1-3회	38	2.39	0.50		
	한 달 1-3회	47	2.58	0.41		
	한 학기 1-5회	41	2.73	0.31		
정서적 장벽	매일	5	2.55	0.43	8.575	0.000**
	주 1-3회	38	2.35	0.46		
	한 달 1-3회	47	2.75	0.50		
	한 학기 1-5회	41	2.83	0.36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매일	5	2.50	0.32	-	-
	주 1-3회	38	2.34	0.50		
	한 달 1-3회	47	2.62	0.41		
	한 학기 1-5회	41	2.79	0.29		
도서관에 관한 지식	매일	5	2.52	0.58	-	-
	주 1-3회	38	2.18	0.64		
	한 달 1-3회	47	2.54	0.53		
	한 학기 1-5회	41	2.76	0.39		
기계적 장벽	매일	5	2.73	0.43	4.061	0.009**
	주 1-3회	38	2.46	0.53		
	한 달 1-3회	47	2.73	0.58		
	한 학기 1-5회	41	2.89	0.58		

** p < .01, * p < .05.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른 5개 영역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적 장벽’, 그리고 ‘기계적 장벽’의 3개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³⁵⁾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3개 영역에 대해 이들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서 재확인한 결과, 3개 영역 모두 한 학기 1-5회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다음으로 한 달 1-3회 이용 집단, 매일 이용하는 집단 순으로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1-3회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적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도서관 직원과의 만남, 도서관 건물의 형태와 이동경로, 사용가능한 기자재와 고장시 처리 방법 등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도서관에 관한 지식 영역은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에서 모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적인 차이 검정이 불가하였다.

라. 도서관이용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응답자의 도서관이용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도서관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를 도서관이용교육 참여유무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2개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경험이 도서관불안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주며, 도서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³⁷⁾³⁸⁾³⁹⁾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도서관이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이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용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5개 영역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도서관이용자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도서관불안

영역	이용교육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직원에 의한 장벽	참여	80	2.52	0.44	-1.605	0.111
	미참여	51	2.64	0.42		
정서적 장벽	참여	80	2.59	0.27	-1.687	0.094
	미참여	51	2.74	0.50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참여	80	2.54	0.44	-1.456	0.148
	미참여	51	2.66	0.41		
도서관에 관한 지식	참여	80	2.44	0.60	-1.655	0.100
	미참여	51	2.61	0.49		
기계적 장벽	참여	80	2.67	0.62	-0.773	0.441
	미참여	51	2.75	0.50		

** p < .01, * p < .05.

마. 한국어능력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응답자의 한국어능력과 도서관불안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한국어능력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 한국어능력(말하기, 듣기, 쓰기의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은 도서관불안 요소 중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0.202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S. L. Bostick, *op. cit.*

37) Q. C.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op. cit.*

38) Q. G. Jiao and A. J. Onwuegbuzie,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op. cit.*

39) Van Kampen and Doris J, *op. cit.*

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은 0.315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이 높은 유학생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한국어능력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

구 분		도서관불안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적 장벽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말하기	Pearson 상관계수	-0.094	-0.098	-0.115	-0.225 **	-0.043
	유의확률	0.284	0.266	0.189	0.003	0.626
듣기	Pearson 상관계수	-0.070	-0.054	-0.226 **	-0.362 **	-0.080
	유의확률	0.427	0.539	0.009	0.000	0.364
쓰기	Pearson 상관계수	-0.069	-0.142	-0.191 *	-0.215 **	-0.163
	유의확률	0.433	0.105	0.029	0.014	0.064
전체	Pearson 상관계수	-0.088	-0.110	-0.202 *	-0.315 **	-1.07
	유의확률	0.320	0.213	0.021	0.000	0.224

** p < .01, * p < .05.

세부적으로 말하기능력은 도서관불안 요소 중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0.255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능력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0.226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는 0.363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능력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0.191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는 0.215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문화적 이질감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응답자의 문화적 이질감과 도서관불안간에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전반적인 문화적 이질감(몰이해도, 거부감, 부적응의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은 도서관불안 요소 중 '직원에 의한 장벽'과 0.249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0.214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장벽'과는 0.303의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유학생들이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이 높을수록 사서들과의 의사소통 및 접근, 도움의 요청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신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신감 결여와 좌절감의 심리적 장애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문화적 이질감과 도서관불안간의 상관관계

구 분		도서관불안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적 장벽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몰이해도	Pearson 상관계수	0.043	0.220 *	0.065	-0.024	0.093
	유의확률	0.624	0.012	0.461	0.783	0.293
거부감	Pearson 상관계수	0.285 **	0.262 **	0.134	0.077	0.165
	유의확률	0.001	0.003	0.126	0.381	0.060
부적응	Pearson 상관계수	0.230 **	0.208 *	0.278 **	0.227 **	0.035
	유의확률	0.008	0.017	0.001	0.009	0.694
전체	Pearson 상관계수	0.249 **	0.303 **	0.214 *	0.128	0.127
	유의확률	0.004	0.000	0.014	0.146	0.148

** p < .01, * p < .05.

세부적으로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몰이해도와 도서관불안 요소 중 '정서적 장벽'간에 0.22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도서관불안 요소 중 '직원에 의한 장벽'간에 0.285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장벽'간에 0.262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부적응은 도서관불안 요소 중 '직원에 의한 장벽'간에서 0.23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장벽'과는 0.208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는 0.278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관한 지식' 불안요소와는 0.227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대학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이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의 도

서관불안 유발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당국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LAS를 이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의 전체 평균점수는 2.60점으로 Bostick 연구의 평균 2.73점 보다는 낮고 장혜란과 오의경 연구의 평균 2.55점과는 비슷한 수치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서관불안 영역 중 '기계적인 장벽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Jiao와 Onwuegbuzie의 비영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LAS를 활용하여 도서관불안을 측정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혜란과 오의경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국내 대학생들은 '직원에 의한 장벽 영역'에서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가장 적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간에 도서관불안 유발 요소에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도서관불안의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편안함'과 '도서관에 관한 지식'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남자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서관이나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증가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5개 영역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장혜란과 오의경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용빈도가 커질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도서관 직원과의 만남, 도서관 건물의 형태와 이동경로, 사용가능한 기자재와 고장시 처리 방법 등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도서관이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이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용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이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반면 도서관이용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여섯째,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이 높은 유학생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 유학생들은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대학 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이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도서관불안 유발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도서관이용교육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불안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과 달리 '기계적인 장벽'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서관불안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어능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감이 낮을수록 도서관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도서관이용교육프로그램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에 교육내용과 강의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활용법을 포함해야 하며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이용빈도에 따라 불안감이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신간자료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마케팅과 홍보프로그램의 도입, 내국인 학생이나 유학 경험이 많은 유학생들과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국내 모든 대학교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많은 표본 집단을 확보한 후 유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도서관불안 측정도구인 LAS에 대한 내용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한 도서관불안 측정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